

고향을 그리워하는 세대의 가슴 몽클한 성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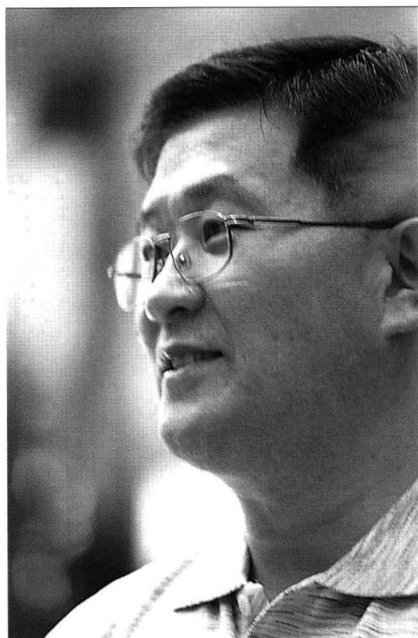


《별을 묻던 날》 박기현 지음 | 생각의나무 | 236쪽 | 값 8,800원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면서 소설쓰기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맛보기도 했지만 연재가 끝난 후 글쓰기에 극심한 회의를 느껴 한동안 소설을 쓰지 못했죠. 그러다가 지난 해 겨울,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겹쳐 고향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 전작장편 《별을 묻던 날》을 상정한 박기현(47)은 이 소설이 자신이 정말 쓰고 싶었던 소설이라고 밝힌다. 이 작품은 아스라이 되살아오는 유년의 세계와 그 원형의 아름다움을 서정적인 문체와 세밀한 상상력으로 복원해 낸 소설이다. 입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주인공은 우연히 친구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고향 안동에 내려간다. 주인공의 마음 속에는 어린시절 추억들이 땅거미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가난했지만 순박했던 가족과 이웃들, 산업화 이전의 무구한 고향의 풍광, 그리고 친구들과의 정겨운 에피소드들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스라이 펼쳐지는 것이다. 시인이 되기를 꿈꿨던 주인공은 자신의 꿈 세 가지를 적은 종이를 ‘사이다병’에 넣고는 금모래 사장에 묻는다… 이 작품은 이처럼 정형화된 스토리라인 속에 1960년대 생활상을 마치 박물관 지처럼 생생하게 재현한다. 작가는 이 부분에 이르러 이야기꾼으로서 자질을 유감 없이 드러낸다.

“소설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와 플롯의 짜임새가 충실한 것이 좋은 소설이지요. 나는 작가로서 그런 소망을 담고 싶었고 앞으로도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거칠게 요약하면 ‘사랑과 인정의 소중함’ 정도가 된다. 그것은 건강하면서도 교훈적인 서사의 추동을 가능하게 하고 감성지향 독자들의 정서에 어필할 수 있겠지만 소설의 주제로서는 다소 낡은 것도 사실이다. 대중적인 멜로 소설이 즐겨 다루는 이 주제에 대해 작가로서 어느 정도 부담도 됐을 것 같다.

“내가 쓰는 소설의 주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사랑과 정’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출발점에서는 성공의 꿈을 꾸게 되지만 대부분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삶을 비관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한 사람만을 우대하는 생존자 편향survival bias의 사회적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요. 나는 소설을 통해 ‘도전과 모험과 경쟁’이라는 현실적

계율보다는 ‘사랑과 인정’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은 멜로소설의 플롯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960년대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세태소설로 읽히기도 한다. 한 개인의 성장소설이면서 그 개인으로 대표되는 한 세대의 세태와 풍속을 매우 예리한 관찰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과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작가 세대의 고민을 보여주기도 한다. 작가 세대에게 고향과 아버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물음 역시 소중한다고 작가는 말한다.

“아버지는 우리 세대에게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멀리 떠나보내고 나니 문득 그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세대에게 아버지는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이었지요. 고향도 마찬가지로 예요. 누구나 고향을 저주하고 떠나는 것을 꿈꾸지만 고향이 주는 아늑한 위안을 또 그리워하게 되거든요. 산업화와 이농현상이 일기 시작하던 때 성장한 우리는 뿌리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작가는 인터뷰 말미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지 못할 때까지 소설을 쓸 거라면서 작가의 길에 대한 완고한 열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소설이 소중한 가족들을 한 번 더 사랑하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피력했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